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7

## “우리도 함께 뛰다”

전남도체육회

# 선수들의 손·발 되어 전남 체육 선진화 질주

“시대변화에 발맞추는 진취적인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에서 도체육회의 굳은 결의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정복(61)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이번 대회 출사표이다. 지난해 전국체전 종합 3위로 광주·전남 분리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도체육회는 올해 ‘체육선진화 기반 구축’·‘체육진흥 활성화’ 등 중점 추진 2대 과제를 선정했다.

### 체육인재 위한 기금 조성

첫째, 체육선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능력을 키우고,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체육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둘째, 체육진흥 활성화 방안은 시·군체육회 지원을 확대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즉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 하겠다는 것이다.

서 처장은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무처의 차장·팀장제를 도입했다. 결국 ‘하나된 체육회’·‘활력 넘치는 체육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부 체질개선을 단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회 참가 각오도 남다르다.

오로지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선수들의 손과 발이 되어왔던 도체육회 직원들이 이번 남이 아닌 자신들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도 나름대로 체력을 단련해온 터라 대부분 자신만만해 하는 표정이다.

남다른 ‘축구사랑’을 보여온 서정복 사무처장은 조기축구와 매일 1만보 걷기로 건강관리 해 왔다는 것. 그래서인지 아직도 ‘젊은 체력’으로 왕성한 체육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서정복 처장 매일 1만보 걷기

김남기(59) 사무처장은 매주 부인과 전국 유명 사찰을 찾아가다보니 자연스럽게 등산 훈련으로 이어져 내실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체육회 살림을 맡고 있는 김용봉(59) 총무부장은 “낙천적인 사고방식과 웃음이 나만의 건강 비결”이라고 자랑한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 김상민(52) 운영부장은 달리기 만큼은 여전히 자신있어 보인다.



이번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에서 전남도체육회의 저력을 보여주겠다며 사무실 앞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체육회직원들.

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 김 부장은 이번 대회 5km 코스에 도전, 상위권 입상까지 노린다.

체육인 못지않게 운동을 좋아하는 공갑석(43) 기획팀장은 “공 차며 달리면 1등도 자신있다”며 너스레를 떨다.

여직원인 정현숙 총무팀장과 이승혜씨는 에어로빅으로, 박수현씨는 춤으로 건강

### 김상민부장 5km 입상 노력

한 몸매를 유지해오고 있다. 안요섭·조신영씨는 헬스로 다져온 ‘몸짱’들. 정희진 훈련팀장은 골프로 기초체력 단련 중.

이밖에도 선수출신 이정호(야구)씨·이행구(축구) 지원팀장과 체육학과 출신 박

경채 경기팀장은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꼽힌다.

서정복 처장은 “무엇보다도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이라며 “지난해 전국체전 성공 개최 여세를 몰아 전남체육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김·연·아 밴쿠버 우승 준비 끝

## 4대륙 피겨 선수권 ... 내년 동계올림픽 전초전 金 자신

‘피겨퀸’ 김연아(19·군포 수리고)가 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2월2~8일, 캐나다 밴쿠버) 우승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결전지로 향한다.

김연아는 오는 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를 출발, 5시간여 비행을 통해 대회가 치러질 밴쿠버에 도착한다. 같은 캐나다에서 이동하는 것이지만 동부에서 서부 끝으로 움직이는 터라 시차만 3시간이나 나는 장거리 여행이다.

지난해 12월 ISU 시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따고 나서 국내에서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졌던 김연아는 지난해 12월 28일 토론토로 돌아와 4대륙 대회와 내달 세계선수권대회(미국 LA)를 겨냥해서 한 달여 동안 차가운 링크에서 굵은 땀방울을 쏟았다.

김연아의 4대륙 대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2월 고양시에서 치러졌던 4대륙 대회를 앞두고 고관절 통증이 심해지면서 대회 참가를 포기해야 했고, ‘동갑내기 라이벌’ 아사다 마오(일본)가 우승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김연아는 지난 2006-2007시즌부터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부상 없이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부상으로 시달리면서 생긴 ‘부상 예방’ 노하우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연아 스스로 “2~3년 전부터 매년 심한 부상으로 힘들었지만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많다. 부상을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치료하는 법도 깨달았다”라고 말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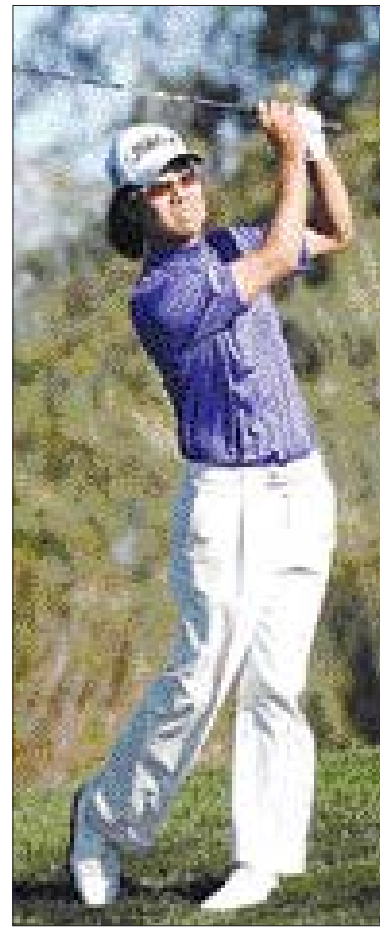
이 때문에 김연아는 지난해 연말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번 시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고, 자신감 있게 아사다와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왔다. 토론토에서 4대륙 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연아는 점프의 완성도와 더불어 점수를 높이기 위한 스텝과 스핀의 레벨을 끌어올리는 데도 주력했다.

김연아는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개의 스핀 연기를 레벨 3로 처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매년 같은 스핀 동작이라도 심판의 판단과 당일 컨디션에 따라 레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레벨당 0.5점의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김연아(186.35점)와 아사다(188.55점)의 점수 차는 단 2.2점이었다.

아사다 역시 김연아와 대결을 앞두고 애초 일본에서 훈련하려고 했지만 지난달 중순께 러시아로 넘어가 타티아나 타라소바 코치와 함께 마무리 훈련에 집중해왔다.

특히 아사다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전일본선수권대회 프리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을 포함, 무려 7개의 트리플 점프를 시도하면서 남자 선수를 능가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피겨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프레올림픽’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가운데 누가 우승 메달을 차지할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김연아와 함께 4대륙 대회에 출전하는 김나영(연수여고)과 김현정(수리고)을 비롯해 남자 싱글의 김민석(불암고)은 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결전지로 출발했다. /연합뉴스



# 나상욱 생애 첫 승 정조준

## PGA 투어 FBR오픈 3R... 선두와 2타차 공동3위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FBR오픈 3라운드에서 공동 3위로 뛰어올랐다.

나상욱은 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TPC(파71·7천216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2개를 쳐 10언더파 203타가 됐다. 단독 선두 케니 페리(미국)와 2타 차이밖에 나지 않아 마지막 날 역전 우승으로 생애 첫 투어 타이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게이, 찰리 호프먼(이상 미국)과 함께 공동 3위에 자리 잡은 나상욱은 2005년 공동 2위, 2008년 공동 4위 등 유독 FBR오픈에서 강세를 보여 왔다. 2, 3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나상욱은 5.6번 홀 연속 버디로 이를 만회한 뒤 8번 홀에서 버디를 하나 더 보태며 전반을 마쳤다.

상승세를 탄 나상욱은 후반 들어 13, 14번홀과 17, 1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으며 이날 하루에 5타를 줄여 순위를 끌어올렸다. 13번홀(파5)에서는 10여 m 거리에서 시도한 이글 퍼트가 홀 약 30cm 차이로 빗나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스콧 피어시(미국)가 11언더파 202타로 단독 2위에 올랐고 제프 오길비(호주) 등 6명이 나상욱에 1타 뒤진 공동 6위권을 형성했다.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는 버디와 보기를 2개씩 기록해 이븐파를 쳐 1언더파 212타로 공동 53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 최향남 월봉 1,300만원 계약

## 광 전훈 KIA 투·포수조 귀국

## 4일 미야자키 캠프 합류

### 美 세인트루이스 정식 입단



롯데 자이언츠 투수 최향남(38·사진)이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공식 입단 계약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매달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 처지가 됐다.

최향남은 지난달 31일 세인트루이스와 연간 계약이 아니라 월봉 7천500달러(약 1천300만원)에 월별 계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통상적인 1년 계약이 아니라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최향남은 “매달 계약을 하는 것은 팀에서 내가 부상이 있거나 실력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프링캠프와 카디널스 산하 트리플 A 펠릭스 레드버즈에서 두 세 달 나를 지켜보면서 괜찮으면 (메이저리거로) 올려 보내고 안 좋으면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트리플 A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면 전담 투수 코치가 매일 최향남의 컨디션을 체크하게 된다.

그는 “3년 전 클리블랜드에서 뛴 때는 팀에서 나를 그냥 놔뒀지만 이번에는 전담 투수 코치가 지켜보게 돼 이전 같은 실력만 보여준다면 메이저리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말했다.

최향남은 3월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 카디널스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메이저리거 스프링캠프에 자리가 비면 올라갈 수 있다는 구두 약속도 받아 놓은 상태다. /연합뉴스

광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던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1일 임시귀국했다.

지난 7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광으로 출국했던 투·포수조 선수단이 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입국한 선수단은 조병현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4명, 서재용과 김상훈 등 투·포수 24명 그리고 내야수 장성호와 홍세완 등 총 30명이다. 광 전지훈련 선수단은 그동안 ‘3일 훈련, 1일 휴식’의 일정으로 과세 오구장에서 기초 체력훈련과 캐치볼, 웨이트, 배팅 등 기술훈련을 소화했다.

1차 훈련을 끝내고 임시 귀국한 투·포수조는 2일과 3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훈련을 한 뒤 4일 오전 야수조 전지훈련 캠프가 차려져 있는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한다.

투·포수조가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하면서 KIA의 전지훈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수단은 오는 3월4일까지 미야자키 휴가 시 오쿠라카가마구장에서 실전대비 기술 및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